

Letter from Blacksburg



2016년 중국으로

지금으로부터 9년 전, 저희 가족은 한 가지 믿기 힘든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정말 저희가 맞나요, 주님? 준비도 안 됐고, 중국어 한 마디도 못하는데요. 아이들도 한창 사춘기인데...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말은 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하나님을 의지해 떠난 그 여정이 지금 돌이켜보면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19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 와 캘리포니아에서 자라났습니다. 그곳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을 졸업한 뒤 1997년에 결혼했고, 딸 헤린과 아들 성현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삶의 여러 여정 중 노스 캐롤라이나에 살고 있던 저희에게 하나님은 ‘중국’이라는 뜻밖의 길을 여셨습니다. 자녀들은 7학년, 8학년. 사춘기 한복판에 있었고,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느껴졌기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단 3개월 만에 살던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가족당 가방 두 개씩 들고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삶은 낯설고 도전적이었습니다. 작은 국제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주말이면 정부에 등록된 삼자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남편은 성인들을, 저는 어린이들을 섬기며, 방학 동안에는 남편이 지하 성경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복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타고 있던 스쿨버스에 화재가 나서 13명이라는 가까운 학생들을 보낸 사고가 있었고 그 와중, 남편은 갑작스러운 심장 문제로 응급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낯선 땅에서 할 수 있는 건 그저 하나님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위기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또 학교도 제자리를 다시 찾았습니다.

2019년에는 정부의 종교 정책이 변화하며,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교회 출석이 금지되었고, 곧 이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몸담았던 교회 공동체는 해체되었고, 봉쇄 속에 오랜 시간 집에 머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시절은 참 외롭고 답답한 시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족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조용한 고요 속에서 하나님은 저희를 더 단단히 붙들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2021년, 자녀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 미국으로 돌아갔고, 저희는 중국 내 다른 지역의 학교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전하기엔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지만, 함께 일하는 중국인 직원들과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나누는 기회들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그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성경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사랑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희가 섬기던 학교는 겉보기엔 국제학교였지만, 실제로는 모든 교사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이들을 품는 ‘비밀 선교 학교’였습니다. 중국 전역에 5개, 사우디아라비아에 1개의 학교를 운영했지만, 정부의 압박이 점점 강해지면서 올해 6월, 저희가 섬기던 학교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는 특히 상처 있고 적응이 어려운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도, 예상하지 못한 귀국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 요한복음 14:2-3

지금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는 버지니아, 블랙스버그에 잠시 머무를 생각으로 오게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교회를 찾아가던 중, 지금의 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날 예배에서 받은 말씀은 큰 위로가 되었고, 지금은 그 공동체 안에서 조용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섬기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늘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걸음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도달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두려움 속에서 ‘이 길이 맞을까’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희의 작은 이야기가 용기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주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믿고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안유신, 백송이 드림

p.s. 영어로 성경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나 연락주세요, 환영합니다!



코로나로 해체되던 교회 마지막 날, 2020년



우시 국제학교 선생님들과, 2021년

헌금/재정지원

https://kbc.us/?page_id=2906

미국 교회 주소: 550 North Main Street
Blacksburg, VA 24060
Mailing address: PO Box 10185
Blacksburg, VA 24062

교회 YouTube channel

@koreanbaptistchurchofblack3581 에서
예배를 실시간으로 시청 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시간: 미 동부시간 오후 1시

Current & Upcoming Events

6월 매주 수요일: 바나바 오픈 모임
6/30-7/3: KOSTA Conference
8/25: Virginia Tech, Radford 개강

기도제목

1. 전쟁, 분쟁, 폭력, 인신매매, 마약, 인종 청소, 성폭력, 기아, 자연재해, 전염병, 빈곤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2.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삶을 잘 살아가게 하소서
3. 작은 공동체: 우리를 교회를 지나간 (졸업, 휴학, 이사) 사람들이 그곳에서도 신앙 생활 잘 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지체들이 주와 동행하고, 말씀 안에 살게 하소서.
마음과 몸이 아픈 사람들의 치료와 회복과정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 가족들에게도 믿음과 평안을 주소서
4. PRC (Pregnancy Resource Center)의 활동과 재정을 주께서 살피소서
5. 북한과 북한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정원정 집사님의 미술 개인전이 6월 18일부터 6월 23일 까지,
인사동 마루아트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작가노트

내 작품들은 쉽다.
쉽게 만든다는 뜻은 아니다.
세상살이도 난해한데 작품에서 그것들을 재현하고 싶지 않았다.
아이들을 위한 그림,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을 병행해 온 이유도 있을 것이다.
삶의 경험들에 대한 나의 작업 반응들을 모아 모국에서 첫 개인전을 열게 되었다.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십장생' 그림책을 만들었다.
큰 병을 앓는 동안, 나에게 힘을 준 이미지들을 기억하고자 콜라주로 남겼다.
기독교신앙을 갖게 되면서는, 배운 말씀을 시각적으로 해석해 보고 싶었다.
'마르다'로 살아온 내가, 이젠 '마리아'처럼 예수님 말씀앞에 조용히 앉아 있고 싶어졌다.
스스로에게 고운 방석 하나 지어 주고 말이다.
쇳성을 바라보며, 오랜 이국 생활 동안 성 같았던 나를 떠올렸다.
우아한 수평선 친구들로 둘러싸인.
제작하는 동안 얻은 희열들이 보는 이들에게 전달되면 좋겠다.
행복한 작업이었다.



정원정

Bare branch Bear new life
素枝開新

6.18(수) - 6.23(월) 2025
인사동 마루아트센터 B1층 C관

제49회 한울회 정기전과 함께 하는 전시입니다.